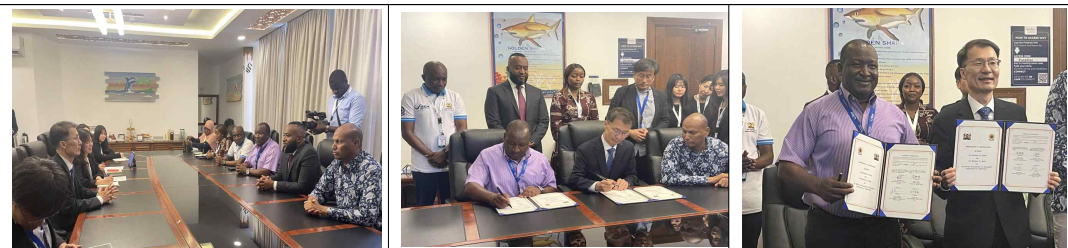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해양연구본부	성명	장정인	직 급	연구위원	
				이윤정		부연구위원	
				이혜영		전문연구원	
		해운연구본부		고병욱		연구위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기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제11차 아워오션컨퍼런스 참석 및 특별행사 개최 · 제11차 아워오션컨퍼런스 한국 정부대표단 협의 지원 · OOC 11 해양금융 부대행사 개최, 해양플라스틱 부대행사 발표 및 참석 · UNOC4 개최 준비를 위한 의제 동향 조사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관련사업 (예산항목)	- 제11차 OOC 국제협력 대응(출장자: 장정인, 이혜영, 고병욱) - 여비 - 하천폐기물 유입 실태기반 차단시설 설치계획 수립 연구(출장자: 이윤정) - 여비						
출장기간	2026.6.14.(일) ~ 2026.6.20.(토) (4박 7일)			출장지	케냐(몸바사)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 교통수단	
	6.14(일) ~6.15(월)	부산→서울		항공이동		KTX	
		서울(23:55)→두바이(04:25)				EK 0323	
		두바이(15:35)→몸바사(20:15)				EK 2476	
	6.16(화)	오전	몸바사/킬리피 카운티	정부대표단 업무협의	해수부 차량 및 현지 대중교통		
		오후	몸바사/킬리피 카운티	OOC 본회의 및 패널회의 참석			
	6.17(수)	오전	몸바사/킬리피 카운티	정부대표단 업무협의			
		오후	몸바사/킬리피 카운티	OOC 본회의 및 패널회의 참석			
	6.18(목)	오전	몸바사/킬리피 카운티	OOC 11 해양금융			
		오후	몸바사/킬리피 카운티	세션 개최			
	6.19(금) ~6.20(토)	몸바사(14:50)→나이로비(15:50)		항공이동		KQ 0607	
		나이로비(16:35)→두바이(22:40)				EK 0720	
		두바이(02:20)→서울(17:05)				EK 0322	
		서울(19:35)→부산(20:45)				KE 1409	
출장성과	[출장 목적 달성 정도] ○ 제11차 아워오션컨퍼런스 참석 및 특별행사 개최 · 제11차 아워오션컨퍼런스 한국 정부대표단 협의 지원 · OOC 11 해양금융 부대행사 개최, 해양플라스틱 부대행사 발표 및 참석 · UNOC4 개최 준비를 위한 의제 동향 조사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 2026년 후속 과제인 2028 유엔 해양총회 개최 준비 관련 과제에서 해양금융 및 해양오염 의제 발굴에 활용 ○ 정책화 및 연구 활용 계획 - 금융 수단 개발, 생태계복원으로 재원이 전달되도록 하는 메커니즘 개발, 협력적인 거버넌스 모색 방안 등의 시사점을 토대로, UNOC4 해양 금융 의제와 관련된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활용 ○ 국제 협력 및 후속 추진 - 해양금융분야 유엔기구나 글로벌 파트너들이 제안한 해양금융 이니셔티브 OOFI(One Ocean Finance Initiative)와의 논의로 연계						
회의비 지출 (3건)	- 6월 16일 화 점심 : 부산시 및 KMI - 6월 16일 화 저녁 : 해수부 및 KMI - 6월 18일 목 점심 : KMI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①	6.16.(화) 해양수산부-케냐정부 해기사 협약식 지원 및 부대행사 참석
수행결과	☐ (오전) 해양수산부-케냐정부 해기사 협약식 지원 - 참석자 : 장정인 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서정호 실장, 김창묵 사무관, 이찬미 사무관 등 한국측 정부 대표단, 케냐측 정부 대표단 - 주요내용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및 케냐 정부의 해기사 협약식 개최 지원 · 케냐 정부와 해기사 상호인정 양해각서(MOU) 체결 · 양국 해기사 자격을 상호 인정 협약으로 해운 분야 협력과 해양인력 교류 확대 기반  ☐ (오전) KMI-부산시 OOC 관련 업무협의 - 참석자 : 장정인 연구위원, 고병욱 연구위원, 이윤정 부연구위원, 이해영 전문연구원, 부산시청 해양수도정책과 조진숙 과장, 송은정 해양환경 팀장 - 주요내용 · 부산시의 본행사 참여 내용에 대한 공유 (PLENARY 5: Combatting IUU through community-led solutions and science-based management 관련, 2025~2027년에 수행 될 스마트 양식 빅데이터 센터 설립 계획,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등 향후 부산시 추진 계획 등) · 이전 OOC 개최 도시로서의 부산시의 향후 OOC 및 해양수산 국제 협력 방안 논의  ☐ (오전) 부대행사 참석 Side Event Block 1 & 2 - 참석자 : 장정인 연구위원, 고병욱 연구위원, 이윤정 부연구위원, 이해영 전문연구원 - 주요내용 · 부대행사명(From Twilight to Spotlight: Protecting the Mesopelagic Zone for Ocean Health, Food Security, Biodiversity, and Climate Stability) · 주관기관: Ocean Conservancy, Government of Panama, Western Indian Ocean Marine Science Association (WIOMSA), Environmental Defense Fund (EDF), Marine Conservation Institute (MCI),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WHOI) · (중층해수대의 생태적·기후적 가치 논의) 중층해수대(수심 200~1,000m)는 해양 부피의 약 20%에 불과하지만, 어류 바이오매스의 약 90%가 서식하고, 특히 참치(50%)·황새치(82%)·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상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이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2-6기가톤의 탄소를 격리해 심해 장기 저장의 관문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강조됨 · (위협요인 및 관리 공백 논의) 중층해수대 종의 약 95%가 생물발광으로 소통해 교란행위에 취약하고, 어분(fishmeal)·어유(fish oil) 수요 증가와 심해 채굴이 주요 위협요인으로 지목 되었으며, 바이오매스 대량 어획 기술이 발전 중이나 국제사회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 공백이 존재함이 지적됨 · (IUCN 결의 제35호 및 정책 방향 논의) `25년 아부다비 IUCN 세계보전의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 제35호는 어업 확대 이전에 생태계 구조 보호·이해를 우선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예방적 접근·과학적 이해 공유·RFMO/BBNJ 의제 주류화가 핵심 원칙으로 제시됨 · (각국 대응 및 향후 과제 논의) 코스타리카는 UNCLOS 145조에 근거해 중층해수대 보전을 파리협정·BBNJ·GBF에 연계할 것을 강조했고, 포르투갈은 신규 MPA(약 173,000km²) 관리 계획에 중층해수대 전용 규제 포함을 발표하였고, 브라질과 바누아투는 과학적 데이터 기반 관리와 국제협력·역량강화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함 
업무②	6.17.(수) OOC 11 부대행사 준비회의 및 부대행사 발표
수행결과	□ (오전) 개회식 - 참석자 : 장정인 연구위원, 이윤정 부연구위원, 이해영 전문연구원, 해양수산부 대표단 - 주요내용 · (2030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목표 논의) John Kerry와 케냐 대통령 William Ruto는 30 by 30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재정·기술·집행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이와 함께 UN BBNJ협정 비준·이행,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 블루카본 생태계(망그로브·해초지) 투자 확대가 핵심 실천 과제로 제시됨 · (블루 이코노미와 해양금융 혁신방향 논의) 케냐 정부는 블루 경제를 경제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개발도상국을 위한 글로벌 블루 경제 투자 시설 구축과 블루 본드(Blue Bond) 발행 환경 조성을 제안했으며, WRI는 2014년 이후 약 3,000건(1,700억 달러) 규모의 공약이 조달되어 80%가 이행 중이며, 아프리카 관련 공약(143억 달러) 중심으로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함 · (아프리카의 형평성과 세대 간 책임 논의) 아프리카의 해양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실질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복 강조되었고, "지구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빌린 것"이라는 세대적 책임 의식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함 □ (오전) 사전 준비 회의 및 부대행사 리허설(회의실 장비 및 슬라이드 점검) - 참석자 : OOC 사무국 실무담당자, 장정인 연구위원, 고병욱 연구위원, 이윤정 부연구위원, 이해영 전문연구원 - 주요내용 · 행사 진행 시나리오(큐시트) 작성 및 진행 순서 사전 브리핑 · 사회자·발표자·내빈 대상 진행 흐름 및 동선 안내 · 발표자료(PPT)·영상 등 시청각 자료 사전 취합·점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세션/무대 전환에 맞춘 현장 자료 송출 및 시연 운영
- 리허설 진행 및 음향·영상 등 장비 사전 점검

□(오후) 해양플라스틱 부대행사 발표 및 참석

- **참석자** : 장정인 연구위원, 고병욱 연구위원, 이운정 부연구위원, 이해영 전문연구원, COBSEA 진현정 담당관, 해양수산부 대표단 및 부대행사 연사
- **주요내용**
 - OOC 11 본회의 및 패널회의 참석 등 정부대표단 업무 지원
- 오프닝
 - **(서정호 해양정책실장)** 해양플라스틱 오염은 해양생태계·수산자원·연안 생계·블루이코노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과제이며 단독 해결이 불가함을 강조하고, 한국의 어구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경험을 소개한 후 2028년 한·칠레 공동개최 UNOC-4를 향한 지역협력과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기대를 표현함
- 기조 발표
 - **(알버트 파체코 카펠라 UNEP 지역해 프로그램 팀장)** 지역해 프로그램이 글로벌 해양 의제를 국가·현장 이행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임을 강조하고, COBSEA(RAP MALI)와 나이로비협약이 각각 동아시아해·서인도양에서 육상·해상 기인 오염 대응 및 지역 우선순위 도출을 지원하는 실질적 협력체임을 설명함
- 기술 발표
 - **(이운정 부연구위원)** 유기·유실·폐기 어구(ALDFG)가 WIO-EAS 양 지역의 공통 위협요인임을 지적하고, 어구 표식·보고·책임 체계 및 수거·재활용 인프라 부족 문제를 제시하며 어항-수거 거점-재활용 시설을 연결하는 모델을 확산 가능한 대안으로 소개함
- 패널토론
 - **테우리 므왕이 (나이로비협약)** 나이로비협약은 해양폐기물 행동계획을 플라스틱 전주기 전략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COBSEA와의 상호학습 및 타 지역해 사례 참고 필요성을 언급함
 - **진현정 (COBSEA)** COBSEA는 Ghost Gear Toolbox 등 유기·유실·폐기 어구(ALDFG)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UNOC-4를 향한 실질적 사업 발굴 가능성을 강조함
 - **크리스 도셋 (GGGI/오션 컨서번시)** ALDFG는 국경을 넘나드는 주요 해상기인 오염원으로 지역 차원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사후 수거를 넘어 어구 표식·보고·회수 인센티브·재활용 연계를 포함한 예방 중심 전주기 접근과 다부문 참여를 제시함
 - **스티브 트롯 (와타무 해양협회/에코월드 리사이클링)** 케냐 와타무의 지역 인력 기반 beach cleaner 프로그램과 에코월드 리사이클링의 순환경제 모델을 지역사회·기업·NGO·카운티 정부 협력을 통해 회수율 제고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례로 소개함
 - **폴리 메리먼 (WWF 인터내셔널)** 지역사회·도시 단위 플라스틱 저감 활동을 글로벌 공약과 연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Plastic Smart Cities 등 도시기반 접근을 통해 지방정부·민간·지역사회의 데이터 기반 행동 변화를 추진함을 소개함
 - **재닌 오스본 (지속가능한바다신탁, 남아공)** 남아공 등 아프리카 7개국의 동일 방법론 기반 해양 폐기물 모니터링 경험을 소개하고, 지역사회가 수혜자가 아닌 데이터 수집·실천의 주체로 참여할 때 지속가능성이 높아짐을 강조함
 - **(좌장, 오틸리아 소레스)** 해양 플라스틱 오염 대응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국가·도시·지역사회 현장의 실질적 이행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Source-to-sea 통합 접근과 WIO-EAS 간 South-South exchange, 다부문(연구기관·지방정부·지역사회·어업인·시민사회·민간·국제기구) 파트너십이 UNOC-4를 향한 필수 요소임을 재확인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③	6.18.(목) OOC 11 해양금융 부대행사 개최 및 본행사 참석
	□(오전) 해양금융 부대행사 개최 - 참석자 : 장정인 연구위원, 고병욱 연구위원, 이해영 전문연구원, 이운정 부연구위원, 해양수산부 대표단(서정호 해양정책실장, 국제협력 총괄과 이찬미 사무관, 이지연 사무관, 양지나 통역관) - 주요 내용 · 부대행사명(Towards UNOC-4: Strengthening Regional Action on Marine Plastic Pollution through the Regional Seas Programme in the Western Indian Ocean and East Asian Seas Regions) · 주최/주관 기관: 해양수산부, 칠레외교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오프닝 · (피터 톰슨 유엔해양대사) 다음 세대를 위한 1.5도 목표 달성이 필수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한국·칠레의 UNOC4(2028) 공동주최를 현명한 선택으로 평가함. 한편, SDG14 싱크탱크 운영과 자문위원회를 소개하고, 해양 거버넌스와 해양금융이라는 두 격차를 지목하며 UNOC4에서 그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힘 · (히메나 클라센 칠레대사) 국제협력·혁신적 파트너십·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지속적 해양금융 격차를 필수적 과제로 지목함. 해양금융 현안을 해결학 위해 칠레는 정부·MDB·민간을 아우르는 구조화된 다자간 해양금융 협력 플랫폼 설립과 예비 해양금융 로드맵 개발을 약속함 · (서정호 해양정책실장) SDG14 달성을 위해 금융과 거버넌스가 함께 다뤄져야 함을 전제로, 부산 로드맵을 UNOC4를 향한 지침 틀로 제시함. 한국·칠레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OOC11 성과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해양금융을 포스트-2030 개발 프레임워크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켜 행동 지향적 파트너십을 촉진하자고 강조함 ○ 패널토론 1) 좌장 (Valery Hickey 월드뱅크 글로벌 환경국 국장) · 기후변화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은 재원임. 아프리카는 해양 금융 혁신이 크게 일어난 대륙 중 하나로, 세이셸(Seychelles)은 최초의 자연 보전 부채 스와프(debt-for-nature swap)와 최초의 블루본드(blue bond)를 혁신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최초의 플라스틱 성과 채권(plastics outcome bond)을 발행한 사례를 소개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오늘의 논지는 단지 재원의 규모 격차만이 아니라, 재원의 임팩트(어디에 쓰이는가) 격차문제, 투자 대비 최대의 효과를 내고 있는가? 의 문제, 접근성(누가, 무슨 목적으로 자금을 받는가) 격차의 문제, 그리고 재원의 연결성(alignment) 격차의 문제(어떻게 하면 1달러가 다음 1달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함

2) 패널1 (Eugenio Rengifo, 칠레자연기금 사무총장)

- 칠레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43% 이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코스타리카, 브라질, 멕시코 등 남미의 보전 신탁 기금 사례에서 영감을 얻어 칠레 자연기금(Chile Nature Fund)을 설립하여 민간 부문, 기업 부문, 자선(philanthropy) 자본을 동원한 사례를 소개함
- 자본의 문제에서 나아가 자본을 어떻게 성과로 전환할지, 즉 자본에서 생물다양성 임팩트로 진전하는 제도(institutions)가 핵심임을 밝힘. 해양을 지킬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제도에 재원이 실제로 전달(delivery)되게 하는 금융 메커니즘이 필요함을 강조함
- 칠레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해양보호구역 중 일부를 지정하여 국제적으로 해양 보호의 선도국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실효적 보전을 위한 재정 격차는 여전히 크며, 많은 나라가 겪는 '약속과 이행 사이의 격차'를 경험하고 있음을 설명함
- 이러한 격차를 좁히기 위해, 칠레 자연유산기금(Natural Heritage Fund of Chile)이 설립되었으며, 보호구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칠레 보호구역 네트워크의 실효적 보전이행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음을 밝힘
- 칠레의 후안 페르난데스 제도는 해양 보호구역의 초기 선도지역이며, 공공 부문과 지역사회 대표로 구성된 견고한 거버넌스, 즉 지역관리위원회(Local Management Council)와 랍스터 기금(Lobster Fund)을 기반으로 보호구역 보전을 위한 통합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설명함

3) 패널2 (고병욱, KMI 연구위원)

- 부산 로드맵 드래프트(초안)과 그와 연관된 해양금융 MRV(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에 대해 설명함. 지속가능개발목표 SDG14는 지속가능개발목표 중에서 가장 자금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임. 국제사회는 오랜기간의 논의를 통해 SDG14의 달성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상호 강화하는 활동을 해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왔음. 부산 로드맵 드래프트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의 활동을 하나의 우산 아래 두는 부산 로드맵 워킹그룹을 운영하자고 제안함
- KMI와 한국의 해양수산부는 어떤 노력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로서 "해양금융 MRV"를 제안함. 이러한 해양금융 MRV 워킹그룹 활동은 시간 순서 상,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음.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존재하는 MRV 기술과 검증 기초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임. 두 번째 단계는 사례 또는 산업분야의 특징적인 MRV 방법론을 하나의 통합된 체크 리스트로 종합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러한 통합된 MRV 방법론을 해양금융 scheme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양금융 MRV 활동 노력을 모범사례로서 정리하여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함

4) 패널3 (Sinikinesh Jimma, UNEP 연안해양생태계 팀장)

- UNEP의 원칙은 총체적으로(holistically) 사고하고 연결된 생태계를 고려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해양 금융의 핵심 조력조건(enabling condition)으로 ①포용적이고 일관된 금융 시스템 (견고한 표준, 거버넌스, 책무성 메커니즘 등)의 수립, ②책무성, 투명성, 과정의 포용성이 보장되는 핵심 거버넌스 플랫폼(기획, 의사결정, 데이터 처리, 정보에 기반한 정책 형성 등)을 강조함
- UNEP는 지속가능 블루 이코노미 전환 프레임워크(Sustainable Blue Economy Transition Framework)와 국가별 신속 준비도 평가(Rapid Readiness Assessment) 같은 다양한 플랫폼 도구메커니즘을 개발했음
- UNEP의 협력사례는 2020년 UNEP-UNCDF-UNDP가 설립한 산호초 글로벌 기금(Global Fund for Coral Reefs)으로, UN 해양회의에서 One Ocean Finance 이니셔티브를 촉발한 영감이 되었음. 민간 부문, 자선 조직, UN 기구들을 모으고 있으며, 민간 부문이 정보 부족 때문에 해양 투자의 리스크를 두려워하는 지점을 이어 주는 수단인 혼합금융(blended finance)의 작동 방식을 확인하였음을 밝힘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조력 조건(enabling conditions) 강화를 위해서 정책 개혁과 제도적 조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 역량 강화, 데이터와 정보 등을 제시함

5) 패널4 (톨슨, 글로벌 오션 트러스트 설립자)

- 2009년에 저는 해저케이블을 동아프리카 해안에 설치하는 프로젝트에 금융지원 업무를 했음. 이 사업은 케냐의 경제를 완전히 전환시킨 것으로 평가됨. 이 사업으로 케냐는 휴대폰 기반의 사회로 전환할 수 있었음을 설명함
- 케이블 인프라를 통해 해양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스마트 케이블 개발 등 막대한 산업적 전환을 어떻게 해양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음을 밝힘
- 우리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주목하고 글로벌 행위자(actors)를 찾고, 또한 글로벌 기관 투자자를 찾아낼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
- 도전과제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위에서 언급한 과제에 대응해 민간의 상업적 부분들에 대해 투자가능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 가임. 이러한 시너지를 내는 노력을 보다 폭넓은 상업적/금융의 언어로 전환시킬 수 있는냐가 중요함을 강조함
- 기관 투자자들이 이러한 이행 노력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음, 투자자들은 투자 주제(themes)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 클래스(class)를 봄
- 즉, 해양에 대한 관심/초점과 이러한 금융상품 간의 대화/번역(translation)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환경보호 생물학자로 성장한 다수의 우리는 이러한 용어를 잘 알지 못함. 그러나 우리가 금융기관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금융 문해력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강조함

○ 종합 정리

「좌장 (Valery Hickey 월드뱅크 글로벌 환경국 국장)」

- 재원의 동원으로 투자격차를 좁히는 것 이외에도 더 중요한 것은 투자를 얻고 실제 임팩트로 진전할 수 있도록하는 임팩트 격차를 줄이는 것임을 밝힘
- 임팩트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공동의제, MRV기반 정보 아키텍처, 제도적 소유권과 거버넌스, 정치적 의지와 역량 등과 같은 '조력 조건들(enabling conditions)'이 필요함을 강조함
- 해양 거버넌스의 틀을 중심으로 이러한 해양금융의 추진 요소들을 조직해 나가고, 국내-지역-글로벌 차원의 사례들을 통한 통찰에서 임팩트 갭을 메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밝힘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오후) 본행사 및 폐회식

- 참석자 : 장정인 연구위원, 고병욱 연구위원, 이윤정 부연구위원, 이해영 전문연구원, 해수부 대표단
- 주요내용
 - (해양보호구역 형평한 관리) Peter Thomson은 화학·플라스틱 오염, 산업적 과잉 어로, 해양 산성화를 규탄하며 원주민 지식(남태평양 휴어기 제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MPA를 입법화한 국가들을 높이 평가함
 - (해양금융과 블루이코노미의 실천적 성과 전환) 케냐 및 아프리카 국가는 해양 보호가 일자리·투자 생계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잔지바르 대통령은 블루 경제가 GDP의 30%를 차지함을 설명하며 신규 MPA 지정, 15만 8,000헥타르 맹그로브 복원(블루카본)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기술 이전과 투자 파트너십을 요청함
 - (과학데이터 거버넌스) EU는 3억 3,800만 유로 투입과 전지구 해양관측시스템(GOOS) 강화, 캐나다와 공동으로 국제 해양 데이터 동맹 '오션 아이(Ocean Eye)' 구축을 발표
 - (차기 로드맵) 캐나다 헬리팩스(2027, 원주민 파트너십·북극 생태계·자연기반솔루션), 자메이카 몬티고 베이(2029, UNCLOS 타결지·이행 중심)가 차기 개최지로 확정

1. 개요

□ 세션명

- Towards a Global Ocean Finance Cooperation Platform: Governance Insights from Latin America and Africa
- 글로벌 해양금융 협력 플랫폼 구축을 향하여: 중남미와 아프리카 사례의 거버넌스 시사점

□ 배경 및 목적

-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대비하여 글로벌 해양금융 협력 플랫폼 구상을 위한 거버넌스 방안 논의

□ 회의 주제

- 지속가능한 해양금융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상을 위한 중남미(민간주도형)와 아프리카(공공주도형) 해양금융 사례 공유, 거버넌스 방안과 UNOC4를 향한 아시아태평양-중남미 협력 논의

□ 일시 및 장소

- 2026년 6월 18일(목), 08:30~09:45 / 케냐 몸바사(PrideInn Paradise Beach Resort)

□ 주최/주관기관

- 해양수산부(해양정책과, 국제협력총괄과), 칠레외교부 공동주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 주요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 총괄과, 포르투갈 외교부, UN 해양특사, UNEP, 세계은행, 칠레 자연기금, Ocean Tru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담당자

2. 프로그램

구분	시간	주요내용
개회	8:30-8:45	- Mr. Jeongho Seo, Deputy Minister for Marine Polic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 Mr. Peter Thomson, UN Special Envoy for the Ocean - Ms. Ximena Alcayaga Claussen, Head of Ocean Department of the Division of Environment, Climate Change and Ocea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Chile
패널 토론	8:45-9:40	Panel Discussion: Global Ocean Finance Cooperation Platform: Governance Insights from Latin America and Africa Moderator: Ms. Valery Hickey, Global Environment Director, World Bank Building a Global Ocean Finance Cooperation Platform: Why Governance Matters, (Addressing ocean finance experiences including African cases of Problue) Key Questions for discussion: Question 1 (Speaker-specific question) A tailored question reflecting the speaker's regional or institutional experience. Question 2 (Common question for all panelists) What lessons from your experience c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Global Ocean Finance Cooperation Platform toward UNOC-4? Speakers: • Mr. Eugenio Rengifo, Executive Director, Fondo Naturaleza Chile Latin America's Experience in Ocean Finance: Building Long-Term financing for Ocean Conservation Question 1: What lessons from Chile and Latin America can help build sustainable financing systems for ocean conservation through partnerships among governments, environmental funds, philanthropy,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ivate investors? • Mr. Ko Byoung-Wook, Research Fellow,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Developing an Ocean Finance Roadmap and Cooperation Platform Question 1: Addressing Busan Roadmap Draft in May, how can an integrated virtuous-cycle approach connect policy, project development, finance, implementation within a global ocean finance framework? • Ms. Sinikinesh Jimma, Chief of the Marine and Coastal ecosystems in the Ecosystems Division(UNEP) Strengthening Governance for Sustainable Ocean Finance Question 1: From UNEP's global experience, what governance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are most important for enabling sustainable ocean finance and translating commitments into measurable outcomes? • Mr. Torsten Thiele, Founder, Global Ocean Trust Mobilizing Global Partnerships for Ocean Finance: Question 1: Why has ocean finance historically lagged behind climate and biodiversity finance, and what needs to change?
폐회	9:40-9:45	Summary and Reflections Moderator

1. 개요

□ 세션명

- Towards UNOC-4: Strengthening Regional Action on Marine Plastic Pollution through the Regional Seas Programme in the Western Indian Ocean and East Asian Seas Regions
- UNOC-4를 향하여: 서인도양 및 동아시아해역의 지역해프로그램을 통한 해양 플라스틱 오염 대응 지역 행동 강화

□ 배경 및 목적

- 해양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약과 지역 차원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실제 현장 이행으로 연결하기 위한 Regional Seas Programme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함

□ 회의 주제

- 동아시아해 지역의 COBSEA와 서인도양 지역의 Nairobi Convention 사례를 중심으로, 육상기인 및 해상기인 플라스틱 오염, 유실·유기·폐기 어구(ALDFG), 지역사회 기반 이행, 지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일시 및 장소

- 2026년 6월 17일(수), 17:30~18:45 / 케냐 몸바사(PrideInn Paradise Beach Resort)

□ 주최/주관기관

-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국제협력총괄과), UNEP 지역해 프로그램, COBSEA, 나이로비 협약 공동주최

□ 주요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UNEP 지역해 프로그램, 나이로비협약, COBSEA, Ocean Conservancy/GGGI, Watamu Marine Association & EcoWorld Recycling, WWF International, Sustainable Seas Tru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프로그램

구분	시간	주요내용
개회	17:30-17:40	Mr. Jeongho Seo, Deputy Minister for Marine Polic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기조 연설	17:40-17:50	Mr. Alberto Pacheco Capella, Chief of the Regional Seas Branch, UNEP
기술 발표	17:50-18:00	Ms. Yoon Jung Lee,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패널 토론	18:00-18:40	Moderator: Ms. Otilia Thoreson, Senior Analyst, Swedish Agency for Marine and Water Management (SwAM) Speakers: • Mr. Theuri Mwangi, Senior Programme Management Assistant, Nairobi Convention • Ms. Hyunjeong Jin, COBSEA Lead on Marine Litter • Mr. Chris Dorsett, Vice President, Conservation, Global Ghost Gear Initiative (GGGI), Ocean Conservancy • Mr. Steve Trott, Projects Manager at WMA and General Manager at EcoWorld, Watamu Marine Association & EcoWorld Recycling • Ms. Pauli Merriman, Interim Senior Director, Oceans, WWF International • Ms. Janine Osborne, CEO, Sustainable Seas Trust, South Africa
폐회	18:40-18:45	Ms. Otilia Thoreson, Senior Analyst, Swedish Agency for Marine and Water Management (SwAM)

1. 개요

□ 세션명

- 제11차 아워오션컨퍼런스(11th Our Ocean Conference)

□ 배경 및 목적

- 해양 플라스틱 오염,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실질적인 이행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글로벌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계기가 필요함
- 이에 해양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정부, 민간, 학계, 시민사회가 모여 선언적 대화를 넘어선 구체적인 재정적·정책적 '공약(Commitments)'을 도출하고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아프리카 및 서인도양 지역의 청년 수용성 확대와 블루이코노미(Blue Economy) 활성화를 집중 논의함

□ 회의 주제

- 우리의 해양, 우리의 유산, 우리의 미래(Our Ocean, Our Heritage, Our Future)

□ 일시 및 장소

- 2026년 6월 16일(화) ~ 6월 18일(목) / 케냐 몸바사(PrideInn Paradise Beach Resort 등)

□ 주최/주관기관

- 주최: 케냐 정부 (Government of Kenya)
- 협력/주관: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UNESCO),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주요 국제기구 및 글로벌 파트너사 공동 참여

□ 주요 참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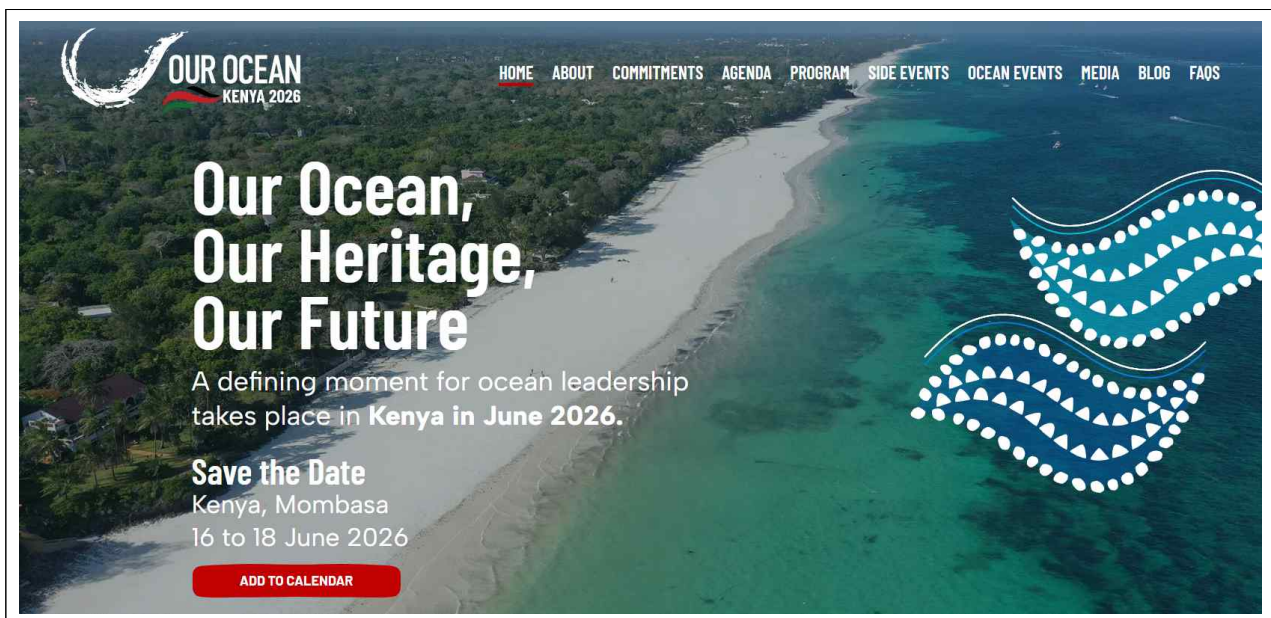
- UN 해양특사, EU 집행위원회(EC) 고위 관계자, IOC-UNESCO 및 IUCN 사무총장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 세계 각국의 해양·환경 유관부처 장차관급 인사 등

2. 프로그램

구분	날짜	시간	주요내용
개회		9:00-10:30	개회사, 환영사, 기조연설 등
본회의	6/17(수)	10:45-12:00	Plenary 1 30x30 달성 및 공해(High Seas) 보호 경로
		14:30-15:45	Plenary 2 투자·금융을 통한 블루이코노미 잠재력 발현
		16:00-17:15	Plenary 3 글로벌 기후목표 지원을 위한 해양-기후 행동
	6/18(목)	10:00-11:15	Plenary 4 효과적 해양영역인식(MDA) 국가·글로벌 역량 구축
		11:30-12:45	Plenary 5 공동체 주도 해법·과학기반 관리를 통한 IUU 대응
		15:15-16:15	Plenary 6 상향식 해양행동: 지역 공동체 리더십 강화
		16:30-17:45	Plenary 7 플라스틱 대응: 미시에서 거시까지
폐회식	6/18(목)	17:45-18:45	폐회사, 폐회연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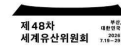
별첨 의제 홈페이지 링크

- OOC11 Agenda - Our Ocean Kenya
(<https://ouroceankenya.com/ooc11-agenda/>)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외교부



수 신 : 수신처 참조
(경 유)
제 목 : 제11차 아워오션컨퍼런스(OOC) 참석 정부대표단 추가 임명 통
보

수 신 : 해양수산부장관(국제협력총괄과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 본 : 주케냐대사

발 신 : 외교부장관(녹색환경외교과장)

1. 녹색환경외교과-1579(2026.6.10.) 관련입니다.

2. 2026.6.16.(화)-6.18.(목)간 케냐 몸바사에서 개최되는 표제 행사에 참석할 우리 정부대표단을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추가 임명(4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회의 개요

- 회의명: 제11차 아워오션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
- 일시 및 장소: 2026.6.16.(화)-6.18.(목), 케냐 몸바사
※ 추가임명자 출장기간: 2026.6.14.(일)-6.20.(토)
- 회의 주제: Our Ocean, Our Heritage, Our Future
- 상세 의제: 해양보호구역, 지속가능한 청색경제, 지속가능한 어업 등

다. 추가 임명 정부대표단(총 4명)

- 대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정인 연구위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병욱 연구위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윤정 부연구위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해영 전문연구원

라. 훈령: 연호 재가 완료. 끝.

외교부장관

수신처 해양수산부장관(국제협력총괄과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주케냐대사

외무사무관 최예슬비 녹색환경 전결 06/11
관 외교과장 박꽃님

협조자

시행녹색환경외교과-1594(2026-06-11) 접수해양연구본부-84662026.06.12

우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도림동)/www.mofa.go.kr

전화02-2100-7785전송02-2100-8470/ysbchoi25@mofa.go.kr/비공개

K-헤리티지, 어제의 유산에서 내일의 자부심으로